

## 제6실 회화 상산사호·문왕여상도 병풍

<상산사호·문왕여상도 병풍>은 원래 호류지의 도인 가람 중 사리전 내부의 수미단을 둘러싼 서쪽, 북쪽, 동쪽 벽면에 맹장지 그림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덴포 연간(729~746)에 건립된 도인 가람은 호류지 태자 신앙의 거점으로써 여러 차례 재건, 개축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리전에는 태자와 관련된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리전 안의 감실 제작과 내장 개축이 이루어진 1364년에 이 그림도 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도시대에는 벽면에서 분리되어 지금과 같은 병풍 형태로 표구되었습니다.

### N-4 상산사호·문왕여상도 병풍

정면을 보았을 때 왼쪽 3척이 문왕여상도입니다. 여상은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인물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나라의 시조 문왕이 그를 맞이하여 국정을 맡겼고 훗날 여상은 문왕의 아들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합니다. 오른쪽 3척이 상산사호도입니다. 진(秦)나라 때 전란을 피해 상산에 은둔해 있던 수염과 눈썹이 하얀 네 명의 현인들이 한나라 고조에게 영입되어 국정을 담당했다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후대에 추가로 그린 부분 등이 존재하지만, 남북조시대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맹장지 그림 중에 현존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사례입니다.

**King Wen and Lu Shang (Important Cultural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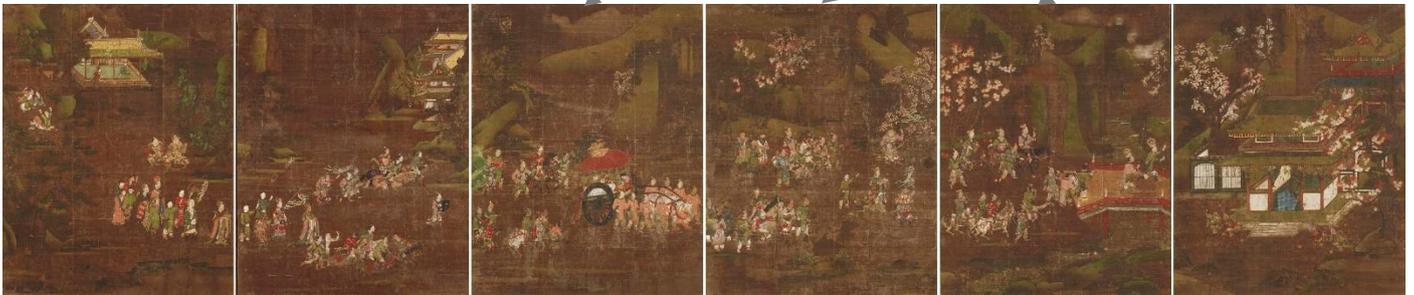
[重要文化財] 文王呂尚/[중요문화재] 문왕여상도

Current positions of the panels/ (现在的排列顺序) /현재 배열 순서



Original positions of the panels

(原先的排列顺序) /원래 배열 순서



**Four Sages on Mount Shang (Important Cultural Property)**

[重要文化財] 商山四皓图/[중요문화재] 상산사호도



## 제6실 염직 | 붉은색 전과 다양한 비단

고대의 펠트에 해당하는 붉은색 전과 함께 다양한 비단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일본의 염직은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아름다운 비단이 연이어 탄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염직의 풍부한 다양성을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 N-54-5 붉은색 전 | 나라시대 8세기

‘전’이란 양털로 만들어진 고대의 펠트입니다. 지금도 서아시아와 몽골 등지의 유목민은 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재료를 고려하면 대륙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N-46-3-2 적색 바탕 산과 마름모무늬 비단 조각 | 아스카시대 7세기

고훈시대부터 아스카시대까지 일본의 비단은 색을 구분한 복수의 날실을 띄우거나 내려서 무늬를 나타내는 경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씨실을 임의로 띄우는 부문금도 일부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부문금으로, 마름모 무늬와 산길 무늬 등 작은 기하학 무늬를 연속해서 나타내었습니다.

### N-313-1 옅은 녹색 바탕 교차 원무늬 비단 조각 | 나라시대 8세기

이 비단은 경금(날실로 무늬를 나타낸 비단)으로,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원무늬 일부를 조금씩 겹쳐서 연결하고 내부에도 다양한 무늬를 넣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금은 세 종류 색의 색실을 날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무려 여섯 종류나 사용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I-336-57 적색 바탕 새와 짐승 연속구슬 원무늬 비단 |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멀리서 보기에는 줄무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연속구슬 원무늬를 나타낸 주문(무늬의 주된 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확인됩니다. 같은 무늬를 나타낸 다른 작품에는 연속구슬 원무늬 안에 마주보는 동물 문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I-336-58 진한 갈색 바탕 쌍봉 연속구슬 원무늬 비단 |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경금 조각. 주문은 마주보는 봉황과 식물 무늬가 들어간 연속구슬 원무늬이며, 부속 무늬로는 중심에 꽃잎이 여섯개인 꽃을 배치하고 사방에 뿔어지는 듯한 팔메트(대추야자 잎을 모티프로 한 무늬)를 배치하였습니다.

### I-336-59 갈자색 바탕 작은 꽃 홀치기 염색 대각선 체크무늬 비단 |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작은 원을 연속시킨 홀치기 염색 무늬로 대각선 체크무늬를 나타내고 그 안에 꽃잎이 여덟 장인 꽃무늬를 담았습니다. 적색과 녹색 두 종류의 꽃이 작은 별처럼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경금 작품입니다.

### **I-336-60 갈자색 바탕 연속 육각형에 꽃과 잎 무늬 비단 |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어렴풋이 줄무늬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 종류의 염색한 날실로 무늬를 표현하는 경금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틀 안에 연속 구슬 무늬를 넣은 육각형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연속시키고 그 안에 끝이 날카로운 꽃잎이 네 장인 꽃무늬를 담았습니다.

### **I-336-67 청록색 바탕 꽃잎이 여섯 장인 꽃과 새 무늬 비단 | 나라시대 8세기**

나라시대에 제작된 경금의 일부입니다. 무늬에는 꽃과 새가 치밀하고 구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발전된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 **I-336-72 황색 바탕 꽃무늬 비단 | 나라시대 8세기**

수, 당시대 중국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에 따라 나라시대 이후 일본에서도 이 작품과 같은 위금(씨실로 무늬를 표현하는 비단)으로 비단 기법이 변화합니다. 이 작품은 기술과 무늬 모두 나라시대의 최신 기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